

일본, 동남아시아와 산·학간 협력 강화

-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이공계대학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·학간 연계를 강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음
- 이는 현지 대학과 일본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신흥국의 산업을 고도화하고,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려는 의도

□ 일본이 주도하는 동남아시아의 산업 고도화

-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를 중심으로 일본과 아세안의 대학, 민간 기업이 참가하는 공동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아세안 역내의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산·학 연계 움직임이 확산
 - 지금까지는 JICA의 SEED-Net 프로그램을 활용, 일본의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대학원생을 수용하는 인재육성에 특화
 - 베트남, 캄보디아 등 개도국 학생들이 태국,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역내 기술선진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
 - 향후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 또는 동남아 현지 진출기업이 동남아 대학들과 공동연구를 추진, 지역의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일·아세안 공동사업으로 연계시킨다는 계획
- 아세안에서는 IT 등 부가가치가 크고 산업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로 산업 비중을 전환하려고 하지만,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가 부족한 상황
 -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박사급 인력을 7,000~1만 명 육성 목표
 - 아세안은 외국기업의 유치에 위해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계획, 이는 외국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비용 삭감 측면에서도 이득이 됨
- JICA는 6월, 태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,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, 참가한 아세안 기업들은 일본과의 공동연구에 큰 관심을 보임
 - 공동연구는 화학, 에너지, 정보공학 등 아세안에서 수요가 많은 8개 분야를 대상으로

태국은 하수처리 능력을 개선시키는 처리막의 연구,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제품의 표면 검사에 사용하는 해석 장치의 개발 등

-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6만 달러까지 지원하며, 20%는 기업이 부담하고, 80%는 일본의 ODA자금으로 조달
- 지금까지 추진한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인프라 사업이나 BOP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전략
- 베트남에서는 일본기업과 현지 대학이 메콩델타 유역에서 우기에도 범람하지 않을 도로건설 방법에 대한 연구 수행
- 일본기업은 수요가 큰 현지 인프라 정비에 공헌하면서 현지의 공무원이나 민간인들과 인맥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

□ 북아프리카 지역과도 협력을 추진

- 일본의 대학과 기업들에 의한 기술 상업화나 산·학간 협력 강화 움직임은 북아프리카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음
- 일본 츠쿠바대학은 2013년부터 튀니지와 바이오테크놀로지,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
- 튀니지와 모로코의 올리브는 유럽산에 비해 폴리페놀 성분이 약 10배 많아 귀중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
- 츠쿠바대학은 튀니지의 국립 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와 올리브를 가공하여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으로 응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기업도 참여하고 있음
- 튀니지에서는 산업진흥과 고용촉진이 중요 정책과제로 바이오테크놀로지나 태양광 발전, 사하라사막의 모래를 이용한 소재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
- 츠쿠바대학은 향후 튀니지와 보다 원활한 협력을 위해 이슬람교나 현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합동조사를 추진, 또 모로코나 알제리에서도 기업들과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

□ 시사점

- 신흥국 대학과의 협력은 수요가 많으며, 협력이 용이하고 현지 니즈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한 정보원이 될 것임
-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신흥국과의 중장기적으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
 - 신흥국들은 기술 지도에 의한 인재육성 단계를 지나 이제는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인재의 육성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음
 -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신흥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현지와의 대등한 협력, 현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
- 우리나라는 IT 등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산·학 연계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
 - 우리 대학들도 신흥국의 유학생이나 연구자들을 적극 받아들여, 학위 취득 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인재활용전략이 필요
 - 기업들도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적극 참여할 필요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3.8.15)